

초록 정원에 숨겨진 과학·역사·예술의 속삭임

정원생활자

오경아 지음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한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식물 역시 마찬가지다. 생활 주변에서 많은 꽃과 나무 등을 접하지만 정작 이름조차 낯설다. 꽃이나 나무 이름이 궁금해도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요즘 포털사이트에서는 특정 꽃을 촬영하면 '무슨 꽃일 확률 몇%'라고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 개의 화분과 한 평의 초록정원은 답답한 도시생활자에게 '힐링' 효과를 안겨준다.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 찰스 쟁스가 설계한 '순천만 국가정원'.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씨가 최근 펴낸 '정원생활자'는 생활 속에서 접하는 많은 식물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방송작가 출신인 저자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조경학을 공부하고 영국 왕립식물원 '유가든'에서 인턴 정원사로 1년간 일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정원 설계회사를 설립하고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원디자이너와 가드닝 등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저자는 원예 이야기와 가드닝 지식을 담은 '정원의 발견'과 '가든 디자인의 A to Z', 시골생활 안내서인 '시골의 발견' 등을 펴낸 바 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정원'부터 '모양에 세월의 흔적을 남겨두는 식물'에 이르기까지 178가지의 식물과 정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정원을 사랑하

는 이유에 대해 "정원이 특정한 사람을 위한 문화적 호사이거나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정원이 우리 삶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조차도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장소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저자가 들려주는 식물 이야기가 흥미롭다. 라벤더라는 꽃이름은 라틴어 '빛다'(Lavo)에서 유래했다. 지중해 연안에 살던 로마인들은 라벤더를 좋아했다. 라벤더를 띄운 물에서 목욕을 하고, 라벤더 물에 빨래를 했었다. 또 집안 울타리로 라벤더를 심어 그 위에 빨래를 말리면서 라벤더 향기가 배도록 했다.

정원을 처음 만든 이는 누구고, 언제쯤일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정원'이라

할 수 있는 화분은 4000여 년 전 현 몰타 공화국 신전에서 사용됐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인 람세스 3세는 웅장한 신전정원보다 꽃 화분으로 가득한 마당 작은 정원을 더 사랑했다고 한다. 지금자족의 삶을 살아야했던 중세 수도사들은 스스로 푸성귀를 재배하고 가꾸면서 정원을 만들었다. 이러한 정원은 허브 정원과 채소정원, 치료정원의 모태가 됐다.

식물이나 정원과 얽힌 역사적인 인물 소개도 눈길을 끈다. 1601년 600여 종 식물에 대한 책을 낸 '꽃의 아버지' 클루시우스를 비롯한 '오이왕'으로 불리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장미로만 된 정원(말메중 성)을 만든 프랑스 나폴레옹의 아내인 조제핀, 독성채소로 분류된 토마토에 대한 오해를 풀 정원사이자 미

국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등 많은 인물이 이야기 뼈대를 이룬다.

저자가 들려주는 꽃과 나무, 정원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게 된다. 특히 시간여행을 하듯 인류 역사를 씨줄로 삼고 식물과 정원 역사를 날줄로 삼아 '인류 정원사'(씨)라는 하나의 옷감을 짜는 듯하다.

책을 읽다 중간중간 만나는 정원에 관한 적언도 울림을 준다. "전능하신 신은 정원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 정원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순수한 즐거움이다."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손 가까운 곳에 이 책을 두고 틈틈이 읽다 보면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들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공리·1만8000원> /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학교 민주주의의 불한당들=학교 민주주의를 해치는 언어, 담론, 정책, 습속에 대한 보고서. 저자는 현직 교사의 섬세한 시선으로 '우리는 어떤 학교에서 살고 있는가'를 묻은 뒤 그 답을 학교 민주주의에서 찾는다. '학교 민주주의의 불한당들에 맞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해 주는 이 책은 더 나은 학교공동체를 고민하고 소망하는 이들의 새로운 시간에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살림터·1만4000원>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여행=죽음 너머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심령연구협회 회원인 저자는 자신의 실제 체험담을 소설처럼 재밋게 늘어놓는다.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걸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놀라지만 하다. <책읽는귀족·1만8000원>

▲21세기 사회주의=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정치의 이슈가 되고 전 세계 진보 세력의 관심을 집중시킨 라틴아메리카 좌파 '분홍 물결'의 전모를 담고 있다. 책을 집필한 전 세계 18명의 정치학자들은 '분홍 물결'을 이끌어 온 좌파 정부의 전라과 시민사회의 실정을 '혁명적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본다. 책은 마르크스주의, 그람시주의, 하버마스의 등 다양한 정치 이론을 검토하면서도, 냉시 프레임의 '강한 공공성' 개념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채용한다. <삼천리·1만9000원>

▲두 번째 명함=30~40대 직장인들의 대화 주제 1위는 단연 "앞으로 뭐 먹고 살



지?'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은 계속 벌어야 하니 이왕이면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라'의 저자 크리스 길아보는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명함'을 통해 증명해냈다. '새 직업 찾기'의 전라과 실제 이를 성공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디렉트·1만6000원>

▲전국의 맛집 2017=우리나라 최초의 맛집 평가서 '블루리본서베이'가 내놓은 '전국의 맛집' 2017년판. 전문가와 2만 명이 넘는 독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수준 있는 맛집을 지역별로 소개한다. 2017년 판에 수록된 맛집의 수는 2016년 판 3329개보다 25개 줄어든 총 3304개이며 리본 맛집의 개수는 전년도보다 늘어났다. 전국을 여행하는 미식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정확하게 맛집을 찾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BR미디어·1만9000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인생 여행지 100곳

사랑하면 보인다

KBS 다큐멘터리 3일 제작팀 지음

"다큐 3일을 모르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난 2007년 5월 무안정터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을 훑으며 500여 곳에 달하는 삶의 현장을 다녀온 KBS '다큐멘터리 3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72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어느 한 곳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따듯하고 특별한 시선 때문에 '다큐 3일'은 10년동안 평균 8%대의 높은 시청률을 유



지할 만큼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오는 14일 500회 특집을 앞두고 있는 '다큐 3일'의 세밀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사랑하면 보인다'는 다큐 3일 제작팀이 서울 노량진 고시촌부터 국토 최남단 마라도까지, 유행의 최전선 강남부터 천년의 도시 경주 개령마을까지 방송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100곳을 선선해 담은 인생여행 에세이

다. 제작팀이 소개하는 100개의 장소는 일반적인 여행서와는 다르다. 골목과 맛집, 시장과 마을 등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보다 익숙한 주변의 장소에서 머물다가 발견한 낯선 풍경을 선물받는 기분이다.

책은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도 좋고 상상만 해도 마음이 흥만해질 만한 우리 주변의 장소들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소개한다. 서울 익선동 166번지 한옥촌이나 광주 1913송정역시장은 오랜 역사가 깃든 장소가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새롭게 다시 태어난 곳이다. 강릉의 안반데기 고랭지마늘과 서울 신사동 산새마을

은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 모두가 맘 흘려 살의 터전으로 일궈냈다. 대구 안지랑 곱창골목이나 평균 70세 이상 할머니 셰프만 모여있는 완주 비비정마을 농가 레스토랑은 음식보다 사람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다.

제작진은 "아무것도 없는 행한 발판도 오래 머물다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걸음으로 화려해 보이던 것들은 안에 숨겨두었던 눈물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며 "여기에 담긴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인생의 참모습인 것 같다"고 전했다.

책 서두에는 다큐 3일이 발견한 대한민국 100곳의 지도를, 그리고 각 장에는 장소를 여행하기 위한 간략한 정보도 함께 실었다. <인플루엔셜·1만5800원> /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아빠 얼굴=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아빠 얼굴 그리기. 파랑이는 눈, 코, 입, 귀, 머리카락까지 자세히 관찰하고 열심히 그렸다. 드디어 완성! 그런데 이상하다. 어떤지 아빠 같지가 않다. 무얼 빠뜨렸는지 알고는 있지만 망설여졌다. 파랑이가 빠뜨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야기꽃·1만2000원>

▲발표하기 무서워요! =발표력을 기를 수 있는 저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발표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발표 공포증, 발표 울렁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재미있게 들려준다. 책은 발표할 때 긴장을 극복하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드래아이들·1만원>

▲아무도 몰랐던 꿈 이야기 = '누가 내 머리에 똥 싸?'로 유명한 볼프 에를브루흐가 그림을 그린,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꿈이 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나는 꿈의 이야기.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길을 잃고 고생도 하지만 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늘름하고 멋진 꿈으로 성장해 간다. <아이위즈·1만1000원>

▲비밀 투표와 수상한 후보들=오성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선거의 원칙과 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본다. 정치하고 공정한 언론을 위해 앞장서는 통신문 기자들의 활약과 민주주의의 근본이념과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선거 과정과 투표의 원칙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치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키르도토리·1만2000원>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m²(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m²(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m²(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